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窓

창

2022 가을 vol.58



#용기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다회용컵 생활화하기

#불필요한 플라스틱용품 거절하기



용기내 광산! 자원순환 참여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하고 커피 할인받고 선물 받자!

2022. 5. 9. - 11. 30.



대상

용기내 광산! 자원순환 참여 카페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고객 누구나

참여방법

- 자원순환 참여 카페 방문하여 텀블러 할인 이용
- 텀블러 인증 사진과 후기를 네이버 폼 링크(<https://naver.me/FshsR7pd>) 접속 후 제출



네이버 폼 바로가기

시상 규모

상품	선정방법	선정인원	비고
커피 상품권 (3만원 광주상생카드)	무작위 추첨	매월 10명	자원순환 참여 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생카드 증정

문의

광산구 청소행정과 Tel. 062-960-8477



황지민 가족(박서진, 박서윤), 「시민, 그리고 희망」, 90×150cm, 천에 아크릴, 2022.
어떤 탄압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표현했다. 2022년 6월 11일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주최한 '2022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한다' 인문예술축제의 프로그램인 '오월정신 릴레이아트'에 참여한 시민작가(가족)의 작품이다.

2		'창'을 열며 엄니의 팔죽	김양균
3	특집 기획	지역축제, 이대로 좋은가? 광주 축제의 진단과 전망 광주다운 축제로서 '5·18전야제'의 가능성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명과 암 칠석 고싸움놀이에서 발견한 지속가능한 마을축제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본 광주 축제	박종찬 고선주 김옥열 임승호 신경구
14	문화 + 人	핫피플 인터뷰 황광우 작가 뜨거운 가슴으로 바람 부는 세상에 서다	김정희
19		문화인 인터뷰 김지연 사진작가 사라져가는 것들을 영원으로 남기다	김혜라
24		청년 문화인 지역 미술 활성화를 고민하는 청년 그룹 '와사비아'	김대욱
27		기획연재_ 우리 신화의 밑바탕 창조신이자 세계를 주재하는 여신 - 마고여신 2	김상윤
30	문화 공감	리뷰 & 행사 이모저모 인문예술융합축제 '2022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한다'	
36		진단 전주만의 특별한 도서관여행	김지현
38		문화특 생통포럼에서 찾은 시민사회의 필요성	김혜라
40		김옥열의 포토에세이 무심한 세월은 흐르고	김옥열
42		재단소식·회원소식·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48		편집후기	

엄니의 팔죽

김양균_ 재단 운영위원장,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대표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 늙으면 잠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내 나이 아직 인데, 농사일이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인지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 지금까지도 계속된다. 30여 년의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도심 속 농촌인 대촌에 터를 잡고 주택생활을 한지 4년.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된 날들을 보내고 있다. “눈 뜨면 이렇게 좋은 세상, 눈 감으면 이리도 편한 세상”이라고 소리 한번 지르고 마당을 밟으면 오롯이 하늘과 땅의 기운을 연결하는 연결체로서의 희열을 느낀다. 눈을 들어 마당 곳곳을 살피다가 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체를 만나고, 밤새 동트기만을 기다렸던 꽃들이 아침 맛을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건너편 대밭의 보금자리에서 무리지어 출근을 서두르는 철새들을 보면서 때가 되어 나타나고 때가 되면 스스로 움직이는 자연의 순리를 터득하게 된다.

아침 순례를 마치고 커피 한잔 들고 앉으면 수많은 생각들이 들락거린다. 그런데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이 있다. 울 엄니의 팔죽이다. 나 어릴 적엔 밀을 직접 심어서 절구통에 찧고 체로 걸러서 밀가루를 만들고 가마솥에 팔을 삶아서 손으로 으개서 팔죽을 쓰곤 했다. 모든 과정을 수작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요즘 팔죽과는 다르게 입안에서 팔알이 툭툭 터지는 달달한 팔죽 맛이 스멀스멀 뇌를 자극하면서 어릴 적 추억을 소환하곤 한다. 울 엄니는 진짜 마술사였고 팔죽의 달인 이

셨다. 하루 종일 밭일을 하시고 와선 금세 팔을 삶고, 밀가루 반죽을 하신다. 그러면 4홉들이 소주병으로 반죽을 미는 것은 내 몫이었다. 우리 집은 형만 빼고 온 가족이 팔죽을 좋아했다. 팔죽 싫어한 형 때문에 이웃집으로 팔죽과 밥을 바꾸러 다녔던 것도 내 몫이었다. 모깃불을 피워놓고 평상에 앉아 온 가족이 팔죽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던 그 때가 엇그제 같은데, 팔죽의 달인께서 지구별 여행을 마치고 본향으로 가신지가 오래되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일곱 그릇을 먹고 허리가 펴지지 않아 일어서지도 못했던 기억도 난다. 배부르면 평상에 누워 별들을 이불 삼고 엄니의 노래 소리를 듣곤 했다. 울 엄니가 제일 잘 부르던 노래가 “낙양성 십리 허에~~”로 시작하는 성주풀이와 송대관의 「해뜰 날」, 들 고양이들의 「마음약해서」였다. 그렇게 엄니는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 하셨다. 가끔 엄니가 생각 날 때면 흥얼거리곤 한다.

지금도 난 달달한 팔죽을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지금 우리 집은 늘 냉동실에 삶은 팔이 대기 중이다. 아내도 내 입맛에 맞게 팔죽을 잘 쏜다. 내가 먹고 싶어 하면 아침에도 똑딱 만들어내는 아내 역시 울 엄니처럼 달인이다. 먹다 남은 팔죽은 하룻밤을 자고나면 초콜릿처럼 굳었으면서도 속을 말랑말랑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온다. 그 맛 또한 일품이다. 8남매를 키우는데 자신의 삶을 다 하고 가신 엄니의 팔죽 생각을 하면서 아련하게나마 엄니의 목소리를 듣는다. “양균아 맛있냐?” ♪

특집기획

지역축제, 이대로 좋은가?

광주는 매년 총장축제, 프린지 페스티벌 등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향유,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특성화된 콘텐츠 없이 반복된 행사로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번 특집기획에서는 다양한 시선으로 광주 축제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광주가 보다 풍요롭고 특색있는 문화관광도시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 광주 축제의 진단과 전망
박종찬_ 광주대학교 교수
- 광주다운 축제로서 '5·18전야제'의 가능성
고선주_ <광남일보> 문화부장
-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명과 암
김옥열_ 다큐디자인 대표
- 칠석 고싸움놀이에서 발견한 지속가능한 마을축제
임승호_ 남구주민회의 운영위원장
-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본 광주 축제
신경구_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전남대학교 명예 교수

광주 축제의 진단과 전망

매년 봄과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다. 올해도 어김 없이 가을 축제 시즌이 돌아왔다. 현대축제는 원초적 제의성은 물론이고 지역민의 일체감 조성,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 경제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관광적 효과 등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다.

국내 지역축제는 90년대 초반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래 지방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80년대까지의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의 단합과 제의적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였다면, 90년대 이후에는 지역의 경제적 이익추구, 지역 이미지의 형성, 지역주민의 융합과 조정, 지역의 삶의 질 제고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관광상품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광주는 상대적으로 순수한 축제가 많은 편은 아니다. 광주에는 특정계층 참여 행사, 단순 주민 위안행사, 예술행사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축제라고 불려도 될 축제는 광주시 관리 축제, 구청 관리 축제, 기타 등 모두 합해도 10개가 안된다. 그러나 축제라는 이름을 빌리거나 비슷한 포맷을 가진 행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즉 성격이 뚜렷하고 축제성이 강한 축제가 적고 문화제 형태를 띠고 개최목적과 방향성이 불분명한 행사, 소위 '생계형 행사'들이 다수 존재

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에는 광주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 김치축제, 임방울 국악제, 정율성 음악제, 충장축제, 서창만드리 풍년제, 고싸움놀이축제, 프린지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봄과 가을에 집중되어 있다.

또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축제가 그렇듯이 광주시의 축제 또한 내용면에서 서로 비슷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축제가 전야제, 개회식, 예술공연, 민속경연, 전시행사, 발표회, 체육행사, 특산물 판매 등 부대행사 등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직까지 광주시 축제의 대부분이 체험형 프로그램보다는 전시형·관람형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들어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고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있지만 여전히 방문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의 수가 너무 적다. 또한 외국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수용태세 정비가 부실한 것도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제들 간에 네트워킹도 결여되어 있어 축제간 연계를 통한 방문객 유치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 축제의 관리주체가 광주시와 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협조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대표축제가 빈약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김치축제가 현재는 충장축제가 대표축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축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축제 전문인력인데 현재 우리의 지역 축제는 비전문가들이 운영해나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축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인력양성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이로 인해 현장전문인력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표축제의 발굴, 차별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불필요한 행사의 과감한 정비, 축제 주체 간의 협력 및 축제 간의 연계전략 모색, 현장 전문인력력 육성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첫째, 홍보마케팅의 강화가 필요하다. 표적집단의 불분명성, 홍보 및 마케팅 능력의 결여 등으로 행사 참여 및 재방문 유도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홍보는 일시적이고 집중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시기, 프로그램 등이 빠른 시간에 확정되어 홍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광주의 축제는 사전홍보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외부홍보는 물론이고 내부홍보조차도 부실한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광주전남 지역민들로 수도권 및 여타 지역 관광객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고, 광주시민들조차 축제개최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광주관광재단의 역할 중 축제홍보 부분을 강화하거나 축제 주최의 법인화, 시와 구의 개방직에 축제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축적 및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단기성 행사와 임시조직구성으로 인해 차기년도 축제와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축제 정보의 축적이 미흡하여 축제개최에 대한 체계적 노하우의 축적이 어렵고, 매년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또한 몇 개를 제외하고는 축제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평가결과의 피드백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자발적 주민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지역 주민이 축제에 자발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동원형 참여가 중심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축제는 축제운영 시 지역주민들이 지역축제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뿐 적극적으로 외지인에게 홍보한다거나 자원봉사자 등으로 활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발적 주민참여는 축제의 장기적 발전을 담보하고, 축제예산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넷째, 수익성이 있는 축제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대형이벤트는 유치국가 또는 도시의 관광 재도약 및 이미지 홍보를 고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엄청난 투자와 노력이 투입된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는 가능한 짧은 시간에 축제재정의 안정을 위한 수익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수익성 측면에서 축제를 검토하고 기획하기보다는 구색갖추기용 축제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비용이 수익보다 훨씬 많고 관주도형 지원축제로 수십년을 끌어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과감히 끊어내야 할 것이다. ♪



박종찬 광주대학교 교수

광주다운 축제로서 ‘5·18전야제’의 가능성

5·18이 항쟁과 민주화운동을 오가면서 어느덧 마흔 두해를 맞았다. 군부독재 정권에 의해 5·18의 가치가 훼손되고 폄훼되며 왜곡이 일삼아졌기 때문에, 국가가 광주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했음을 자인하는 동시에 역사 앞에서 사죄할 것을 촉구해왔다. 또한 발포 명령자 등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매해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가 폭력이 자행됐음에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무고하게 학살당한 광주시민의 명예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가는 형국이다.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국가폭력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세대들의 층이 얇아진 반면, 5·18 이후 세대들이 대폭 증가했다. MZ 세대들까지 합세해 5·18의 가치를 인식시키면서 역사적 당위성을 함의해낼 수 있을지가 현실적 과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 5·18의 주제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를 들여다보면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는 구절이 있다.

과거에는 군부독재의 탄압과 민주주의 압살에 대한 민중들의 강인한 정신을 표출하던 문맥이었다. 이 담론의 의미는 변화되지 않을 테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도 여러 해석을 내놓게 하는 것은 시간이다.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 당대를 살아가는 20대들(자라나는 세

대)이 5·18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게 됐다. 만약 인식한다면 이 구절은 시간에 상관없이 유효할 것이다. 유구한 세월 속 변함없이 5·18의 가치를 존속시킨다는 것으로 풀이가 가능해진다든 의미다.

그만큼 계층 간 인식이 중요해졌다. 이런 가운데 5·18 항쟁 주간의 입과 같은 지점은 뭐니 해도 전야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올해 마흔두 번째 성스러운 전야제를 치렀다.

매년 전야제를 조망해보면 공연과 전시, 퍼포먼스 등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 같은 프로그램 구성은 일관성 있게 전야제의 중심을 잡는 노릇들 같은 역할을 해내는 매개체들이다. 오로지 추모의 방향이 아닐로고라고 하는 단일 방식이었을 시기에는 이런 방식이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분화되면서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과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고나 추모의 방식 혹은 방향성에 관한 질의도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42주년이 흐르면서 엄청난 세대교체가 일어났기 때문에 5·18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5·18 세대의 층위가 급격하게 약화됐다. 그만큼 5·18이 발발한 이면과 민주주의적 가치 등을 5·18 이후 세대와 당시 이를 인지할 수 없었던 연령대의 세대에 이르기까지를 포용해 인식시키는 문제가 제1의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올해 전야제는 다시, 오월을 비롯해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 등 총 3부로 구성,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라는 주제 아래 3년 만에 이뤄졌다. 전야제 직전에 진행된 광주 수창초교에서부터 금남로에 이르는 구간에서는 민주평화대행진이 거행돼 1980년 오월 당시 택시와 버스기사들이 구현했던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을 오롯하게 복기해냈다.

금남로 일대 25개 부스에서의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가동 및 버스킹·퍼포먼스·타악 등의 공연과 전시를 포함한 문화예술행사, 5·18 피해자 및 가족들을 위한 광주트라우마센터의 부스 운영 및 5·18 당시 헌혈에 참여했던 시민정신을 기리기 위한 헌혈의 집 재현, 오월 어머니회의 주먹밥 나눔 부스에서의 나눔 정신 설파, 그리고 금남로 시민난장 부스 등 다채로운 전야제 프로그램들이 일제히 가동돼 추모열기를 고조시켰다.

올해 전야제 행사에서 볼 수 있었던 현상 하나는 대다수 프로그램들이 정착돼 운영됐지만,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너무 익숙한 방식으로 전야제를 고수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아날로그적 방식에 너무 경도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더욱이 전야제 행사에 걸맞지 않은 정치 지향적 발언이 여전했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또한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

5·18을 겪었던 지금의 60대들은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여전히 발표자가 없다는 점, 헌법 전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 정신적 피해 보상이 미미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5·18이 매듭이 지어졌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이들 세대에게는 지금의 전야제 방식에 대해 긍정하는 시각이 우세한 듯 보인다.

줄곧 민주화 현장에서 투쟁가와 예술가의 삶을 살아온 ○씨는 5·18 전야제의 현재적 진행을 긍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조의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전야제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다.

노래와 퍼포먼스, 공연 외에는 특별할 것이 없는 것 같다. 다만 좀 더 승화돼야 하고, 예술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5·18 전야제는 전통 있고 관록 있는 예술단체들보다는 5·18 이후 세대로 구성된 신생 예술단체들에게는 꼭 한번 서보고 싶은 무대로 꼽힌다. 이름 있는 밴드와 함께 퓨전식 무대를 꾸몄다는 신생 예술단체 측은 5·18 전야제 무대에 올라보고 싶어 하던 중 성사돼 매우 흡족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무대에 선다는 것만으로 매우 만족됐다. 관객들 앞에 서보는 것 자체가 신선했다”고 했다. 전야제는 신생 예술단체들에 발표 공간으로 경쟁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전야제는 다양성 없는 전야제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목소리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5·18에 관한 인식 확장과 가치 확대 및 미래 발전 담론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관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에 의한 문화축제로의 승화를 이뤄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숙고해야 한다.

이제 5·18 전야제의 주연은 5·18 세대들보다는 5·18 이후 세대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때 5·18 전야제는 5월 항쟁 주간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전반적으로 관심 저조를 막아낼 수 있는 콘텐츠 역할까지로 격상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때다. ♪



고선주 <광남일보> 문화부장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명과 암

- '프린지'답거나 혹은 '광주답거나'

사진 찍는 일을 좋아하다 보니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열릴 때마다 촬영차 현장에 자주 갔다. 전체 프로그램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매년 프린지가 열릴 때마다 옆에서 지켜본 듯하다. 그렇게 지난 6년, 그리고 7회차인 올해 프린지까지 보면서 느낀 생각들을 좀 적어보고자 한다. 물론 내가 축제 전문가나 문화에 식견이 높은 것은 아니어서 시민의 눈으로, 주마간산식의 관찰을 바탕으로 한다.

그간 지켜본 바로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참 문제가 많은 축제였다고 기억된다.

우선 그 동안의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이름값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광주프린지는 주가를 올렸던 '에딘버러프린지페스티벌'에서 빌려온 이름이다. '프린지페스티벌'이라는 말은 광주만 가져다 쓰는 것은 아니고 여러 나라 많은 도시에서 가져다 쓰는 거의 일반 명사화되어 있다. 그러나 다 알다시피 '프린지'는 그 기본정신, 출발의 계기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우며 '구속'과 '짜여진 틀'을 거부하는 창작활동을 지향하는 예술가들의 자발적 축제에 기인한다. 제도권의 지원을 받으며 짜여진 구도 안에서 진행되는 공연이나 활동에 반감이 있거나 끼지 못한 자유로운 창작 파들의 잔치에 가깝다. 따라

서 프로그램이나 공연 내용이 매우 창의적이고 실험적이었을 것임에는 두말한 필요가 없겠다. 이런 정도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광주는 '프린지'라는 이름만 가져왔을 뿐 그 출발정신과는 무관한 '관에 의한', '관이 주도하는' '철저히 계획된' '돈으로 초청하는' 그런 관제축제로 시작되었다. 축제다운 축제가 없던 광주가 '이거다' 싶어 이름을 빌려왔고 세상에 흔한 문법의 축제공식을 가져다 붙인 '명실상부하지 않은' 축제였던 셈이다. 판만 깔아주고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예술영혼들을 펼쳐보이게 하든지, 아니면 '프린지'라는 맞지 않는 옷을 빌려오는 대신 창의적인 새로운 옷을 만들어 입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프린지페스티벌'이라는 이 어설픈 이름을 던져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으면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옷이야 물 건너온 옷을 입더라도 내용이 좋으면 그것도 새로운 문화가 될 수는 있을 거다. 저 먼 나라 감자나 고구마가 한반도 땅까지 건너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 소중한 작물이 되었던 것처럼 잘 뿌리내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은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서 ‘이것이 과연 될 하고자 하는 축제인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다.

광주프린지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도한 적도 있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체로는 ‘잡탕식’ 축제에 그치지 않았는가 하는 게 내 생각이다. 거리 공연이 가능한 중앙무대의 공연 팀들을 섭외하다보니 똑같은 출연자들이 연이어 나타나거나 단순히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분위기 연출용 공연이 상당수였다. 바람잡이용이라고 해야 할까? 매년 오는 물방울공연팀을 보고는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것도 지금까지는 일부 외국 팀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공연 팀을 서울 무대에서 데려왔다. 나는 언젠가 공연도중 진행자가 하는 말이 참 거북했다. “지역에서는 이런 공연 못 보죠?” “아 얼른 하고 우리는 서울가야하는데~” 하는 등의 말을 출연자가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이다. 과장해서 해석하면 ‘돈받고 내려와서 촌놈들 앞에서 이런 공연 하는데...’ 하는 의식이 깔려있는 듯하게 느껴져 참 불편했다.

이왕 돈으로 데려오는 건데 춤이든 노래든, 어떤 형태의 퍼포먼스 등 지역의 팀, 지방에서 활동하는 팀도 있을 것인데 대체로 그들은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프린지적이지 않다. 그냥 돈으로, 부르기 쉽고 흥행썸 되겠다는 중앙의 팀들 불러다 짜깁기한 거리 공연 외에 별다른 특색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게 내용적으로 느낀 내 생각이다.

그나마 올해 프린지가 좀 색다른 쪽으로 방향을 튼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올해는 ‘우리 동네 프린지’와 ‘민주광장 프린지’ 두 곳으로 장소도 나누고 내용도 구분해 진행 중이다. 눈에 띄는 게 ‘우리 동네 프린지’다. 주로 지역의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시내 주요 포인트를 찾아가 그 지역 주민 관객들과 함께 무언가를 펼치고 즐기는 것이 컨셉이다. 확실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이고 방향성이어서 좋다. 그래도 올핸

‘광주’라는 타이틀을 단 축제 이미지에 좀 다가선 듯해 낫다는 이야기다.

프린지에 대해 몇 마디 보태고 싶다. 첫 번째는 ‘프린지’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기획의 창의성, 주제나 진행의 독창성을 좀 살려서 광주다운 옷을 입은, 광주다운 축제로 한번 전환해보면 어떨까하는 것이다. 어차피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예산 좀 더 없는 것은 무리도 아니다. 이왕 할 거 진짜 참신한, 그저 어디서 본 듯한 축제 말고, 신선한 광주만의 축제를 한번 만들어 방향전환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 못할 것도 없지 않은가? 돈이 없는가? 머리가 부족할 뿐.

‘프린지’를 고집할 거 같으면 진짜 프린지 냄새가 나게 전환해보는 것도 어떤가? 전국의 내로라하는 언더 세계의 고수들, 문화 판에서 돌아보고자 피땀 흘리는, 불러주면 ‘좋아할’ 예술지망생이나 팀이 얼마나 많겠나. 그들을 적절한 지원금 주고 불러다가 며칠간 신나게 놀아보게 하는 것 말이다. 일종의 반 자유적 예술 축제? 괜찮은 컨셉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자유롭게 놀아보도록 하면 어떨지? ‘지원하되 간섭 없는 문화 한 판’으로 알려진다면 성공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흥행실패를 두려워말고 몇 년 투자해보라. 어차피 지금 거액을 들여 모셔온 분들의 축제도 대성황은 아니니까.

한 마디로 ‘프린지답게’ 하거나 ‘광주답게’ 해보자는 말이다. 어디서나 하는 잡탕 축제 말고. ♪



김옥열 다큐디자인 대표

칠석 고싸움놀이에서 발견한 지속가능한 마을축제

필자는 고싸움놀이로 유명한 남구 대촌에서 마을 기업(마을카페 남동풍)을 10년간 운영했었다. 그 10년동안, 마을전통의 공동체문화와 마을축제의 성공요인에 관해 구체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다. 칠석마을 공동체 전통과 고싸움놀이 행사에는 마을문화공동체와 마을경제사업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마을축제의 실현원리가 담겨있다.

칠석마을 공동체전통과 고싸움축제는 '나는 마을에서 누구인가'를 학습하는 마을학교의 기능을 한다. 어렸을때부터 고싸움축제를 경험하면서 자란 칠석마을 주민들은 생애단계별로 마을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운다. 마을일을 시작하는 20대가 되면 어른들이 시키는 단순한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40~50대는 마을 리더그룹의 일원으로 마을축제의 실무책임을 맡는다. 60~70대는 고문이나 자문의 역할을 한다. 마을축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일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과 평가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최선을 다해 마을축제에 참여하게 된다. 마을주민 각자가 주인공처럼 참여하는 마을축제는 실패할 수가 없다. 치밀한 준비와 기획, 추진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 충실한 축제운영, 그리고 꼼꼼한 축제 기록과 정리까지 완벽하게 이뤄

진다. 이런 축제는 정부의 지원금이 없어도, 마을 자체적인 기금조성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마을경제를 구현해 낼 수 있게 된다.

마을축제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적절한 보상체계도 형성되어 있다. 칠석마을 규약이나 광주향약 조항에도 마을일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보상을 얼마 해야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마을전통을 따르고 행사를 함께 하면서 주민들의 품성과 인성이 길러지고 사회적 평판이 이뤄지는 사회적 보상체계가 작동 되도록 되어있다. 향약이나 마을규약의 목적은 마을의 '선량한 풍속'을 만드는 데 있다. 마을공동체의 관습과 의례, 그리고 마을행사를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역할과 책임을 학습하게 된다.

칠석고싸움이 지속가능한 마을축제가 될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은, 놀이와 축제로부터 시작하여 일과 경제공동체로 발전해간다는 점이다. 함께 준비하고 땀흘리는 놀이를 통해 '관계만들기'가 먼저 이뤄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공동체 경제의 규약과 일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최근에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공동체경제를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마을축제 등 마을만들기사업 등을 추진할때에 먼저 '돈'을 던져준다. 문제는 마을에 협동과 신뢰의 관계만들기가 허술

마을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며 지속가능한 마을축제를 통한 '관계만들기'가 먼저 되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봉사 그리고 보상체계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주민자치를 실현해 낼 수 있다.

한 상태에서 '돈'이 생기면 갈등과 불신만 커지고 결국은 공동체성을 아예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게된다.

필자는 유럽의 마을축제를 소재로하는 다큐멘터리를 즐겨서 본다. 작은 마을이지만 세계적인 축제를 여는 유럽 마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마을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와 행사를 한다는 점이다. 마을음악밴드를 만들어 주민 전체가 참여하여 함께 연습하고,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음악페스티벌을 유치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은 마을의 전통으로 자리잡고 마을 활성화의 계기가 된다.

칠석마을 공동체 전통과 고싸움놀이는 신뢰와 협동의 문화적 규범을 만들고 그 결과 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공동체 경제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마을축제의 모델이다. 또한 마을 스스로 공유재산을 관리 운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용사업과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갖추는데 까지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칠석마을 고싸움축제와 전통이 '가족->마을', '놀이와 축제->경제' 라는 단계와 순서를 암시해주듯이, 마을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며 지속가능한 마을축제를 통한 '관계만들기'가 먼저 되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봉사 그리고 보상체계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주민자치를 실현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자립과 자조를 위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등 공동체경제가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결국 마을공화국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지속가능한 마을축제는 마을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주인공이 되고, 그 마을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아내고, 온 마을 주민이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결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삶의축제'라야 한다. 축제를 통해 '나'는 누구이고, 우리마을은 어떤마을인지,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마을은 어떤모습이고, 그것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문화적 학습양식이다. ♪



임승호 남구주민회의 운영위원장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본 광주 축제

충장축제

충장축제는 7080시대를 기억하는 세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충장으로 거리의 특징을 공유하면서 성공한 축제이다. 개막식에는 유명 연예인을 무대에 세워서 민주광장이 좁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오고, 포장마차 식당에서 다양한 옛날 음식이 수많은 사람들을 행사장에 오랜 시간머물게 했다. 그동안 충장축제의 중앙 무대와 거대 확장기가 청중들의 시각과 청각을 지배했지만, 최근에는 크고 작은 행사들을 광주 중심지에 분산 배치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작은 행사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시민 참여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 참여 기회뿐 아니라, 김치페스티벌, 월드뮤직페스티벌과 같은 규모 있는 기존 행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규모 축제는 대중들이 참여해서 즐기는 행사이다. 브라질 리오의 카니발, 미국 뉴올린언즈의 마디그라, 태국의 송크란, 독일 뮌헨의 10월 맥주잔치축제가 그렇다. 40일 동안 절제해야 하는 사순절 직전에 고기 파티로 시작한 카니발은 종교적인 특징을 잃고 육감적 본능에 몰두하는 행사로 발전하였고, 종교행사로 시작한 아일랜드의 성패트릭데이 축제도 결국은 먹고 즐기는 행사로 발전했다.

충장축제도 추억으로 시작해서 발전했는데, 계속

해서 본래의 특성과 지역의 정체성을 확장해야 특성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는 민주·인권 및 문화·예술의 도시이다. 따라서 7080의 교복과 교모뿐 아니라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을 중요한 기억으로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5·18기록관, 5·18기념재단 등을 행사에 끌어 들여끌어들여, 1980년 광주항쟁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민주인권, 한류,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는지를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7080에 머물지 않고, 1990년대의 모래시계, 2000년대의 화려한 휴가, 2010년대의 택시운전사 등으로 기억을 연장하면서, 80년의 운동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2020년대의 기반이었음을 보아야 한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특징을 살려서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광주와 세계의 미래를 보여 주어야 한다. 충장축제는 지금 월드페스티벌로 이름을 바꾸고, 버스커즈월드¹ 버스커즈월드컵² 재미를 곁들이면서 중년 세대 중심의 축제를 극복하면서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다. 동시에 광주의 특징을 살리면서 젊은이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행사로 발전하는 것이 비용대비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 <https://www.donggu.kr/index.es?sid=c8>

2 <https://www.buskersworldcup.com/kor/>

5·18축제

충장축제가 광주에 가을 축제를 대표하듯이, 5·18 주간은 광주 도시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봄 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독립전쟁으로 30만 명 가까이 죽었지만, 7월 4일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고 축제날이다. 프랑스 혁명으로 처형된 사람만 1만6천 명이 넘고 관련해서 죽은 사람이 5만 명이 넘지만, 7월 14일을 바스티유의날로 기념하고, 전국에서는 대규모 불꽃놀이와 퍼레이드로 이날을 축하하며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 발전을 다짐하는 축제가 되었다.

5·18 주간 행사에서 당시의 비극적인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동시에 광주항쟁은 1980년에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역사에 만들어 온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공한 항쟁임을 강조해야 한다. 즉 5·18주간은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문화 발전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축제 마당으로 다음과 같은 행사를 포함할 수 있다.

- 수백명의 5·18 참가자들이 수천 명의 젊은이를 만나서 얘기하는 길거리 대화
- 당시 광주에 있었던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언론 대담과 증언
- 5·18이 학생/노동자 운동과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문가 강연
- 5·18기념재단이 주관하는 광주인권상 수상식 확대
- 민중가요, 대중음악, 클래식 음악을 포함한 크고 작은 거리 음악회

세계 각국에서 민주인권참관단을 자비로 초청해서 전야제, 기념식 참여는 물론 기록관과 국립묘지 등 기념물 탐방, 5·18 유공자와의 만남, 전문가 강연회 참여를 통해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체험하게 하고, 홈스테이 등을 통해서 시민 교류기회 제공

이런 행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체가 각각의 특징을 갖고 참여하되 그 결과를 평가해서 해마다

발전하는 5·18주간이 되도록 면밀하게 구상을 해야 할 것이다. 또 행사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발간물은 물론 행사의 진행도 영어 통역 또는 자막을 활용해야 한다. 외부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5·18주간은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 축제로 발전 가능할 것이다. 그동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행사장 접근성을 높이고 행사 내용을 확대한다면 김치축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운영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참가 업체를 전국으로 넓히고, 다양한 지역의 김치와 한국 음식을 소개하면서, 다른 나라 음식까지도 선보이는 등 국제적은 음식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축제이다. 아울러 시민과 다양한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만드는 행사로 광주국제교류의날을 모범사례로 제시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1억 안팎으로 운영하는 같은 규모의 행사를 광주에서는 참여를 기반으로 3천만 원으로 운영해 왔다.³

광주가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5대 도시 중 하나로 인정받기도 했고(2015년)⁴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그 지역성이 두드러지고, 추억의 충장축제가 전국 지역축제 중 5위에 포함된 적도 있는(2019년),⁵ 등 광주의 축제는 확장시킬 수 있는 경험과 기반이 튼튼한 편이다. 광주의 축제가 다른 도시의 축제를 따라하기 보다는 광주의 가치와 매력을 얼굴로 해서 여기에 재미로 단장하는 축제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3 http://gic.or.kr/portal/board.php?bo_table=notice&wr_id=2106

4 <https://m.blog.naver.com/xkwhtmsla1/220465600450>

5 http://www.consumerinsight.co.kr/travel/report_view.aspx?idx=3067



문화+人_ 핫피플 인터뷰 | 황광우 작가



뜨거운 가슴으로 바람 부는 세상에 서다

- 삶의 맥락을 쓰는 작가 황광우

김정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편집위원

쾌락도 좋고 행복도 다 좋은데, 어느 순간 죽음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도대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접근 방법 중 하나가 먼저 살다간 인류의 천재가 어떻게 고민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 뱉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접근이죠.

김정희 안녕하세요. 먼저 ‘제 28회 석은 김용근 선생 민족교육상’을 수상하신 것을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자료를 살필 겸 선생님의 이력을 자료를 통해 찾아보았습니다. 동시대를 살아왔는데 선생님이 걸으신 길은 사회변혁을 실천하며 행동하는 진짜 인문학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마음으로 고전 인문학자의 길을 걸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황광우 내 위로 6살 형 황지우 시인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데는 절대적으로 황지우 시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조속한 형을 따라 『도스토예프스키 악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 만만치 않은 문학서적들을 탐독했어요. 어려서 한방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형이 보는 책을 저도 같이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클래식을 듣는 형의 음악적 취향을 따라 가게 되고 형이 좋아하는 문학서적을 읽게 되었지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한국사연구회’라는 굵직한 이력을 갖춘 학생운동 서클이 있었는데, 그 서클에서도 형이 제 선배였더라고요. 또 형이 군대를 제대하고 서울대 미학과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을 갔었는데, 영어원서를 번역하는 것이 한학기의 주요 리포트과제였는데 형이 굉장히 게을러요(웃음). 그래서 그 어려운 미학 리포트를 전부 저에게 하청(?)을 주며 번역을 하라고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10여 편 정도의 미학리포트를 번역한 것 같아요. 두고두고 생각해보니까 가장 좋은 글쓰기 훈련인 좋은 명문을 많이 번역해 본 셈이죠. 그런 경험들이 쌓여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대학 운동권 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사회과학 서적으로 박현채나 이영희 같은 뛰어난 사회과학자들의 서적을 읽으면서 의식화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저는 중3, 고1 때 벌써 읽었고, 대학교 들어와서 까지 그 책을 읽는다는 게 이해가 안됐어요. 후배들은 그냥 맑스, 레닌 번역서를 읽고 구호를 외치는 정도였다고 한다면, 저는 사회과학을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문학과 철학에 관한 기본 소양을 닦았다는 게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후 소련공산당이 몰락하는 즈음 1991년도 전후로 많은 운동권 이론가들이 절망에 빠지고 방황하고, 변질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문제였어요. 맑스, 레닌의 시대가 갔다고 하면 소크라테스, 예수, 공자 더 위대한 인류의 스승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 삶의 자양분을 끌어내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작품이 『뗏목을 이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때부터 운동권 인문학의 교양서적으로 맑스 뿐만 아니라 공자, 예수, 아인슈타인, 톨스토이 등을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라톤 논술아카데미’를 차려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단지 입시공부만이 아니고 폭넓고 다양한 세계관을 몸에 익히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그때 제가 청소년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토대로 2004년 『철학콘서트』를 쓰게 됩니다. 『철학콘서트』는 약 30만부 팔린 인문학의 전무후무한 베스트셀러인데 그 이면에는 제가 10여 년 넘게 청소년들한테 인류의 여러 사상적 스승들을 반복해서 가르쳤던 경험에서 쉽고 재미있는 철학 인문서를 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로 전남대 대학원 철학과를 2010년도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철학의 기본을 다시 익혔지요. 맑스를 먼저 읽었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이 유효하고 무엇이 결여됐던가. 맑스 사상 중에서 어디까지가 여전히 타당하고 어디까지 반성해야 할 것인가. 그런 자기반성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맑스를 넘어서려면, 맑스 사상의 원료인 헤겔과 플라톤의 기본을 알아야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대학원에 가서 플라톤을 공부했죠. 플라톤을 공부하다 보니 소크라테스를 알게 되고, 또 소크라테스를 알고 보니 그리스 인문학의 원천인 호메로스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으로 ‘호메로스’를 썼어요. 그 책이 지금 ‘철학의 신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이렇게 저의 인문학적 관심은 이어져 왔습니다.

김정희 사실은 그 시대에는 맑스, 레닌 책을 읽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이걸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탄압을 받던 때잖아요. 그럼에도 맑스에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들 만큼의 정신적 영향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곳을 향해 지향점을 두고 철학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흘러 가셨다는 생각입니다. 활동 중반에 광주에서 논술, 인문, 철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펴내신 수권의 인문학이나 철학 서적들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

고 싶으신 특별한 메시지가 있으신지요?

황광우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철학을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어찌다보니까 태어났고 죽음이 없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존재가 언젠가는 소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그때까지의 삶에 의미부여를 해야 하지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요즘 세대는 가끔 물질쾌락주의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쾌락도 좋고 행복도 다 좋은데, 어느 순간 죽음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도대체 삶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접근 방법 중 하나가 자기 혼자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기에 먼저 살다간 인류의 천재가 어떻게 고민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 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접근이죠.

그리고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고 만약 내가 그 점에 대한 해결책을 명쾌하게 풀었다면 노벨상을 넘어서서 또 한 명의 성인군자가 나왔겠죠(웃음). 그래서 제가 청소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라는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뉴턴에게 “당신이 천재였기에 남들이 보지 못한 우주의 비밀을 그렇게 수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나요?” 물어보니 뉴턴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해변가에서 조약돌을 줍고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 우주의 거대한 어마어마한 신비에 비하면 만유인력의 법칙 하나를 만든 것은 해변가에서 조약돌 하나 줍고 신기해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고 또 하나는 “내가 일반사람들보다 조금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턴이 올라간 거인은 세 명입니

다. 데카르트, 갈릴레오 갈릴레이, 천문학자로 케플러 이 세 사람을 마스터하면서 새로 나온 천재가 바로 뉴턴입니다.

김정희 뉴턴의 세 거인처럼 선생님께서도 마음 속 거인이 따로 있으신가요?

황광우 그건 제가 쓴 책 『철학콘서트』 시리즈에 나와 있어요. 철학콘서트 한 권에 10명 씩 나오는데요, 세 권이면 30명이예요. 그 30명이 제가 올라탄 거인이라 봐야 할 것이고, 그중에서도 청소년한테는 제일 먼저 예수, 운동하면서는 맑스, 그리고 서양사상 쪽은 역시 소크라테스, 플라톤, 동양 쪽에서는 역시 공자. 이런 분들하고 저는 거의 같이 대화하는 정도 매일 대화할 정도로 가깝습니다.

김정희 우리는 고전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고전은 어려워서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데요 고전을 공부하는 특별한 방법 있을까, 공부의 기술이 있을까요?

황광우 일단 가이드가 필요하죠. 적어도 인류의 3000년 역사에서 살아남은 고전이라 한다면, 3000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제가 쓴 책도 평균 10년을 안가서 없어지거든요. 그런 거대한 에베레스트 꼭대기를 올라가야 한다면 가이드가 필요하죠. 호메로스, 일리아스, 오딧세이아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일리아스는 처음부터 읽으면 안돼요. 일리아스가 스물 네 장인데, 12편은 신에 관한 이야기이고, 12편은 인간에 관한 이야기인데, 신에 관한 이야기는 먼저 읽으면 안돼요. 머리아파요. 건너뛰고 인간들 이야기를 읽고, 인간들 이야기 중에 제일 재미있는 건 3장, 6장, 9장,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것부터 읽으면 즐거리는 오딧세이아는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가는 이야기인데, 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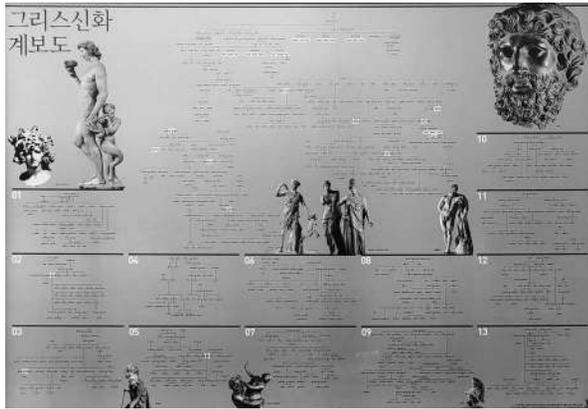


책장에는 인문고전이 가득하다.

분 처음부터 읽는데 그러면 재미없어요. 제일 뒤쪽에 9장 읽고, 5장 읽고 모험의 순서에 따라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28권인데 도대체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신랄하게 보여주는 것이 두 개 있어요. 하나가 소크라테스 변론, 두 번째는 향연- 그 중에서도 제자 아르키메데스의 회고담이 있는데 기가 막혀요 소크라테스의 특성을 잘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각 책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나갈 것인지는 먼저 읽어본 사람의 가이드를 받고 하면 참 좋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고전 공부모임을 이끌어 왔는데, 제 역할이 그런 가이드 역할입니다.

김정희 선생님께서는 인문, 고전, 철학 등 인격수양에 대한 책들을 집필하시고 독서를 권장하시는데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인문 고전의 전파력이나 설득력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띄게 될까요? 인문, 고전을 통한 주변의 변화를 직접 느끼시는지요.

황광우 딱 잘라 말하기 힘든데, 변화의 정도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한 1퍼센트 정도? 책만 읽어선 안 되고, 실천해야 돼요. 사람이 삶이 바뀌는 건 습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삶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문학을 약간의 장식물로만 생각해요. 교양이라든가 뭔가의 결핍



사무실 한켠에 놓여진 그리스신화 계보도

감에 대한 충족- 누군가 앞에서 과시할 수 있는 언변이나 학력의 콤플렉스를 채우기 위한 마스크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고전을 다양하게 읽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좋다고 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유명한 말을 배우되 소크라테스의 삶을 배우고 때로는 비슷하게라도 나도 살아 보겠다는 이른바 발심 이런 것들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다만, 그런 건 있겠지요. 인문학 철학을 가까이 하다보면 사람이 맑아진다는 생각- 그렇지 않았으면 세속적으로 물들었을 터인데 인문학을 공부하면 맑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큰 삶의 태도의 변화는 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겠지요.

김정희 실제로 인문학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1퍼센트의 변화,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직접 실천하고, 행동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문이나 철학은 인간의 도덕적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황광우 일단은 책을 읽고 사람이 바뀌기보다 즐거움의 순도가 높거든요. 그런 정도, 고급 수준 높은 쾌락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김정희 끝으로 계획하고 계신 저서나 활동계획이 있으신가요.

황광우 일단은 내년에 광주민주항쟁 때 총 들고 싸웠던 시민군들 이야기를 감동적인 글로 좀 써보려 합니다. 영문으로도 써서 광주 이야기를 세계화시키는데 일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되면 민주항쟁이 50주년이 돼요. 1974~5년부터 1987년 6월 항쟁 때까지 있었던 한국 현대사 속에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한편의 글로 쓰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조선공산당이라는 조직으로 일을 한 독립투사들,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교양서를 좀 쓰려고 구성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의 역사에 대한 채무가 세 권으로 마감이 되는 것 같고, 제가 다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공자의 삶을 현대화 시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공자의 견해를 생동감 있게 전하는 그런 책을 이미 써 냈는데 그래도 계속 묵혀 부족한 걸 채워 2026년도쯤 출간할까 합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는 제가 나이가 칠십인데 그동안 써놓은 일기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써놓은 일기가 굉장히 두꺼워요. 정돈해가지고 ‘황광우의 일기’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인문 철학자의 연구실 ‘동고송’을 나서며 우리는 자신을 얼마나 투명하게 알고 있을까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작가 황광우에 대해 필자가 막연히 상상하던 모호한 이해와 뒤섞인 감정이 짧은 만남으로 조금은 명료해졌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타인과 공유하는 일은 어렵고 또한 말로 전달하는 것은 서툴지만 마음을 옹기하는 일이란 말 그 자체보다 더 정서적 영역이었다. ... 모든 사회운동은 예술적이어야 합니다. 수많은 악기가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아야 합니다. 언젠가 읽었던 책속의 한구절이지만 한 인문 철학자의 지난 사회운동의 길도 함께 맞는 비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작가 황광우의 다음 책을 기대한다. ♪

문화+人_ 문화인 인터뷰 | 김지연 사진작가



사라져가는 것들을 영원으로 남기다

-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작가 김지연

김혜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간사



김혜라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작가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 보았더니 그리 어색하지만은 않네요. 처음 접하는 독자 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지연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김지연입니다. 저는 1948년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나 자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에서 몇 년 동안 직장생활과 재수를 하고 서울예대에 다니면서 연극을 좀 하게 됐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전주로 가게 되었어요. 전주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이 오십이 되면서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소 사진을 꾸준히 찍으면서 개인전을 열고,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동시에 기획전도 여러 차례 열면서 지금까지 왔네요.

김혜라 정미소 사진을 찍었다고 하셨는데, 작가님이 운영하셨던 ‘공동체 박물관 계남정미소’와 연결된 작업이었는지요?

김지연 계남정미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미소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정미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라지는 정미소의 내부 공간을 살려 어떤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보고자 시도했던 건데요. 요즘 많이 알려진 도시재생이라던가 그런 시발점, 첫 사례였다는 평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 머물게 된 건 아니고 장소를 먼저 탐색하다보니 진안이 되었던 거예요. 진안에서 문화

활동을 한 건 문화 활동이 필요한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이고, 지역에 대한 특별한 의미는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진안으로 왔는지, 왜 거기서 하는지 물어보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걸 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겠느냐, 공간이라든지 시도해보고 싶었던 장소가 진안에 있었을 뿐이다’라고 답하죠.

김혜라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작가님이 거쳐 오신 공간들에 대한 얘기를 더 듣고 싶어요. 대표적인 공간으로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와 서학동 사진관이 있는데요. 흔히 접하는 미술관, 박물관 등과는 다르게 전시공간으로는 조금 특별해 보였어요. 처음에 어떻게 이곳들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셨나요?

김지연 제가 2002년에 개인전 ‘정미소’를 발표했을 때 정미소가 많이 사라지던 때였어요. 처음에 전라북도에서 정미소를 한 100개 정도 찍고 사진전을 열었는데, 그 뒤로도 전국적으로 한 500개 정도를 찍었어요. 그때마다 정미소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였고, 저는 ‘정미소가 왜 사라질까. 사라지는 것들 중에서 특히 정미소가 사라지는 건 너무 희한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미소가 풍요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리고 농본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 정미소가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 한 정미소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기계의 발달 때문인지, 어떤 편리성에 의한 건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고, ‘나 또한 나이를 먹어가면서 함께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미소의 내부를 살려서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정도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공간,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일일이 사진이나 가지고 있는 물건 같은 걸 구해보고 각 동네마다 찾



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계남 마을 사람들이라는 전시를 열고, 또 진안 지역에 있는 사라지는 학교의 졸업사진들도 모아서 책도 만들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기록과 그들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일일이 찾아다니고 자료를 구해서 기획전을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명한 작가의 전시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작가를 초대해 전시를 하지 않았어요. 계남 정미소는 그 지역에 속한 단순한 문화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같이 동질감을 느끼는 얘기를 하는 곳이 되길 바랐어요. 그런 마음으로 다섯 차례의 기획전을 혼자서 꾸려왔죠.

김혜라 기획전이라면 하나의 전시를 선보이는 데 기획부터 작업까지, 작품을 수집해 주제에 맞는 공간 배치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게 혼자서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김지연 사실 진안에서 너무 지쳐서 전주 서학동 전시관에서는 행정지원을 따로 받지 않았거든요. 어쩌다가 한 번씩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간지원금을 타기도 했지만, 서류가 너무 복잡해 매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원을 하면 거의 다 붙었어요. 사실 지방에서 공간지원금을 타는 곳이 별로 없어요. 서울, 경기 지역이나 유명한 아트센터 그런 곳이 주로 선정되거든요. 그런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서 저희를 알아줬어요. 작지만 특별한 활동을 하는 기획 측면에서 굉장히 칭찬해 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랬어요. 심사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데 새로운 뜻을 담아내고 그들(심사위원)이, 또 지역 사람들이 필요한 걸 제시해주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순수한 의도로 시작한 곳은 거의 없었거든요.

김혜라 유희공간이나, 역사적 의미가 담긴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선 시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이나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김지연 그래서 사실 많은 시도를 하기엔 그 고민이 매우 커요. 시, 군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었고요. 국가에서 주는 공간지원금은 몇 번 선정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간지원금이라는 것이 정말 ‘공간’을 위해서는 잘 쓰이지 않아요. 제가 한번은 도중에 지원금을 반납시켜버렸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반납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어떻게 공간 지원금이 공간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냐.” 심지어 전시에 필요한 조명도 사면 안돼요. 소모품이라 여겨요. 그래서 전시 준비하는데 거의 개인비용이 많이 들고요. 제가 젊고 에너지 넘칠 때는 다 몸으로 뛰어

모래톱이 그리운

영산강

김지연

나는 영산강을 넓은 풀안에서 다 살펴서 못했다. 내가 태어난 곳을 중심으로 영산강 유역의 땅을 다시 찾는데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강을 넓히면서 둑 아래로 사라졌지만, 광주지역으로 흐르는 영산강의 한 다리 옆에서 태어났던 나의 옛집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 곳을 중심으로 내가 지나나던 곳과 외갓집 동네 낙평 정자교 주변과 아버지가 세운 중학교 터와 외종조할머니네 조카가 살던 나무 배 과수원 주변에서 나는 더 많이 서정거렸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강의 근원지와 종착지가 아니라 내가 살던 곳의 강물이었다. 내가 태어난 곳 옆으로 흐르는 강이 영산강이라는 사실조차 오랫동안 몰랐었다. 그 강이 무슨 강이던 내 인생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최근에서야 어머니를 동행해 나는 영산강 옆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한국전쟁을 겪었으며 세 살 때 황야 갈수록 작은 동네로 이사를 갔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유년시절은 그 안동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곳이 고향의 전부인 줄로만 알았다.

어머니는 심혼이 시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자 갖가지 애집을 떠난 것이라고 전해 주었다. 다 큰 아들을 잃은 할머니는 그 정을 만손녀인 나에게 쏟아 부었다. 그녀는 애절하고 절절하고 뜨거웠던 마음을 오롯이 남긴 채 내가 일 살 때 마흔이었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얼마 후 우리는 하나도 남김 미련 같은 것이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고향을 떠나왔다. 그 뒤로는 성묘 타시는 돌아보지 않는 곳이 되었다.

이렇듯 '영산강은 나의 사적인 연민과 회귀의 장소인 것이다. 다시 돌아온 곳에 여전히 강물은 흐르고 있었다. 그 근원지를 찾아 나설 것도 없이 강물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얼굴이 아니었다. 그도 흐르고 나도 따라서 흐르고 있었다. 영산강 유역의 기동진 평야는 이제 낯설게 느껴져서 강 건너 총정 비행장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 소음이 크게 들리었다.

여름 비약필마래 역제반을 해배하던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역제는 온빛 미타결 같은 꽃잎을 강물위로 날리며 그 근원을 생각하게 한다. 강기의 포플러나무는 그 열렸던 푸르들을 사위 그 누르스름한 나뭇잎만 몇 잎 남아 강물의 느린 흐름을 눈치 채게 한다.

강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선풍바다에 이르는 목포 고향도에서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다. 돌아오는 길에 함평을 지나면서 할머니의 역호기 '함평매'이었던 기억과 할아버지가 늘 부르시던 '함평천지 늪은 물이' 호남가의 첫 소절이 떠오르기도 했다. 영산강 곳곳을 다 걸 하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한 작은 다리 옆에서 태어났기에 그곳을 못 벗어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생각이 나를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라. 영산강의 근원에서 서해 바다에 이르기까지 내 혼을 실어 보낸다.

공간을 위한 공간지원금이 아니다.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서류상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쓰기가 너무 어렵다고.

김혜라 행정 절차나 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겠네요.

김지연 맞아요. 또 지방일수록 행정은 더 무관심해요. 작은 것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한번은 '대체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매일 시시한 동네 사람들 이야기나 하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보더라고요. 계남정미소를 보는 시선 중 하나가 "예술성이 부족하다."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술성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과연 합당한 예술인가? 무엇이 예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마 도시에서 볼 수 있을 거다, 그런 걸 보러 굳이 시골까지 올 필요는 없는 거라고 말해요. 제 작업을 알아주는 전문가 분들은 인문한 쪽에 가치는 두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서 만들어왔어요. 이제는 한계가 있어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젊은 작가들도 많이 하소연을 해요. 정말 경비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결과기엔 지원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정작 쓰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떤 공간을 지원해주고, 전적으로 사람에게 맡긴 후에 오로지 작품을 보고 나서 사람을 쓸 것인가 결정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형식상 너무 복잡하고,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가끔은 사소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한번은 서학동 사진관에서 '택배' 기획전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 부서의 부장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왜 지원금을 반납했는지 물어보시면서, 전시가 말하는 방향이 자기 부서와 맞아서 지원할 수 방법이 따로 없을까 싶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솔직히 말씀 드렸어요. 이걸

김혜라 수차례 전시를 열면서 주로 타인의 삶을 비추고, 더 나아가 사회적 의미를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작가님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출생지인 광주, 그리고 작가님의 유년시절들이요. 이번 전시도 그렇고요.

김지연 어떻게 보면 제 작품 속 정미소나 이발소 등 장소가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에요. 할아버지 손 잡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 자르고, 구멍가게에서 외상하고, 그런 기억을 사진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사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사적인 얘기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공감을 얻어내는 표현이 되었어요. 제가 개인전 '삼천 원의 식사'를 기획할 때, 자영업자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이미 제 주변에 자영업자분들이 망해서 쓰러지는 곳들이 많았거든요. 높은 인테리어 비용 내고, 또 은퇴하신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아서 힘들게 차렸지만 망하고,

제 작업은 그 문제들이 대두되기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예술, 최소한 감성을 앞서가는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진의 기술적 능력보다는 한 발자국 더 앞서서 내다보고 공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전의 작업은 어떤 유형학적인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이번 작업은 단순하고 과감하게 찍어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새롭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역시 제가 가지고 있던 고향, 근원적인 것에 대한 향수, 이웃들에 대한 관심. 결국 그런 이야기예요.

김혜라 그러니까 작가님의 모든 작품은 사적인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시대가 지닌 공감대가 된다는 거죠? 이번 전시회도 그러한가요?

김지연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던 근원의 부분, 그것이 비록 한 지역, 영산강이라는 장소일지라도 주체적으로 끌어내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이 전시를 할 때는 내가 영산강을 끌고 왔다, 끌고 온다는 느낌을 가져오도록 배치나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었고, 광주에서 전시를 할 때는 나는 영산강 안에서 살고 있지만, 영산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산강에 대해 더욱 표출해서 생각해보자는 거죠. 우리의 영산강은 어떤가, 내 마음 속 영산강은 어떤가. 그런 자아의 탐색이 담겨 다르게 느껴졌을 지도 모르겠네요.

김혜라 시각적 작품으로서 ‘사진’보다는, ‘사진을 찍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작가님께 묻고 싶어요.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카메라를 든 사람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로 느껴지거든요. 작가님은 왜 사진을 찍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김지연 사진은 찍는 순간 과거가 되잖아요, 모든 것이. 지금 말하는 이 순간도 어떻게 보면 과거가 되는 거죠. 사진이라는 건 그 과거를 박제시키는 것 같아요. 어떤 강을 찍더라도 작가가 일부분, 단면을 잘



라내는 거거든요. 그게 작가의 선택이에요. 결국은 모든 게 과거가 되어버리지만, 아까 말씀처럼 누군가의 공감을 일으켰다고 하면은 지나가버린 과거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사진은 시간과 공간을 잘라내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행위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키느냐 하는 것은 사진가들이 가져야 할 숙제,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또 의외로 제가 서울에서 전시를 하면 젊은 분들은 흔한 거, 익숙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좋아하더라고요. 같은 작품을 보고도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재밌기도 해요.

김혜라 지금껏 카메라에 많은 걸 담아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은 앞으로도 어떤 마음으로 계속 사진을 찍고 활동해나가고 싶으세요?

김지연 사진은 약간의 기술만 있으면 찍을 수 있는데, 그 어떤 작업보다도 정말 철학, 인물학적 경험과 이해,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말하는 거지만, 좋은 사진과 그렇지 않은 사진을 구별하는 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접근이 매우 쉽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어려운 거죠. 앞으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웃음) 저는 보통 주변의 것들, 사소한 것들, 사라진 것들, 놓치기 아쉬운 것들을 찍어요. 영원히 그런 것에 시선을 둘 것 같아요. ♪

지역 미술 활성화를 고민하는 청년 그룹 '와사비아'

광주 청년미술가들에게 호소한다! 광주미술계는 현재 침체 상황인 것일까? 활성화된 상태일까? 가능성 있는 많은 청년작가들이 광주를 떠나고 있다. 또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다. 하지만 떠나는 청년들은 필자가 20여 년 넘게 광주미술계를 지켜본 바로는 작금의 현실의 반증이다.

그럼 왜 떠나는 것일까? 인구감소에 따른 체감일까? 광주 화단 청년작가 구성은 조선대학교와 전남대 미술대학 배출 인원이 구성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4년제 대학을 나와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인원이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태환경일 것이다. 광주 미술계의 생태계는 얼마나 건전한가? 올해로 광주아트페어가 13회째 개최 준비 중이다. 우리 광주는 13여 년간 광주아트페어와 함께 성장한 상업 화랑이 얼마나 있을까? 그 화랑들은 얼마나 가능성 있는 작가들을 찾아냈고 이끌고 성장을 시켰을까?

세계의 우수한 작가들을 보면 원하던 원치 않던 자본의 흐름과 시장의 변화와 많은 연관성을 가진다. 작가 생태계가 좋아지려면 작품이 잘 팔려야 한다. 팔기 위해 꽃을 그리는 것을 작가들은 경멸한다. 팔기 위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에 매료된 관객이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생태계 구조일 것이다.



2021년 예술산책



예술산책 작가장터



수영선수권 청년작가기념 초대 13인전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은 줄어들고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주거공간을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더불어 집에 두고 감상할 수 있는 작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서 사야 하는지 무엇을 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러면 왜 13년 동안 광주에서는 아트페어와 함께 상업갤러리를 성장시키지 못했던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아트페어인 부산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화랑협회가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가 되었다. 광주는 관에서 비영리민간단체들에게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다. 해마다 운영주체가 바뀌고 주체가 바뀔 때마다 전 사업단에서 했던 일들을 반복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러니 중장기로 거시 안적 안목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냥 한 해 한 해 문제없이 행사만 치르면 그만인 것이다. 광주미술계의 더 악재였던 건 광주미협이 폐널티로 인한 3년여간 식물 미협이었다는 점도 한몫 했으리라 본다. 누군가의 잘못은 누군가 바로잡아야 한다. 이게 선배들의 몫일지 아니면 현재의 우리 아니면 성장하고 있는 다음 청년들,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한 부분을 통탄하며 열변을 토하는 많은 사람들 각자 자각하고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다. 누가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광주미협도 정상화되고 상업화랑 역할에 관해서도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기투합하여 움직이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에서는 디어마이광주라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축하여 활성화에 노력 중이다. 관에서는 얼마나 미술 생태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태계 구성에 힘써 부흥의 시대를 만들지 그냥 이대로 그냥저냥 흘러갈지, 생태환경이 좋아지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 예향의 도시 광주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예술의 거리를 가면 예술이 보이지 않는다. 기획자, 큐레이터, 예술가 이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 기관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청년들이 떠난다면 광주 미술의 미래는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영화, 음악, 음식, 드라마, 스포츠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분명 미술 분야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시점이 찾아오리라 본다. 준비된 자들이 필요하고 준비된 생태계가



- 1 장용림 작가 문프로젝트
- 2 이세현 작가 문프로젝트
- 3 이인성 작가 유튜브 편집중인 영상
- 4 정정하 한점 갤러리

필요하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땐 이미 기회를 잡기 힘들 것이다.

와사비아는 문화 예술을 기반으로 14년이라는 시간을 광주·전남 예술인들과 함께 걸어왔다. 와사비아가 있기까지 함께해 준 작가들께 도움이 되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문프로젝트로 올해 13번째로 해마다 작가를 선정하여 본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운송차량 2대와 건물 외벽에 작가를 홍보하는 프로젝트이다. 실제로 서울 운송 중 장용림 작가를 찾고 있던 컬렉터가 운송차의 문프로젝트를 보고 연락처를 물어와 연결을 해드렸던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인성작가로 영상 홍보와 웹 홍보까지 추가로 자체예산으로 진행을 하여 시대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고 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그림을 이제 막 시작하는 신인 작가들을 소개해주는 영상과 문학 분야 및 다른 장르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한 점소개라는 코너로 작가가 자신에 애장작품한 점을 소개하고 다음 작가를 지명하면 그 작가가 작품을 소개하고 다음 작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정정아 작가를 시작으로 릴레이 한 점 소개가 진행 중이다.

이 지역의 미술계의 성장은 각자가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와사비아는 업체로써 그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미술계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성장해오고 있다.

현 광주미술계는 분명 성장할 것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선후배 동료들 다양한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맹점에서 젊은 작가들도 가능성에 도전하고 희망을 가져봤으면 한다. ♪



김대욱 와사비아 대표

창조신이자 세계를 주재하는 여신

- 마고여신 3

‘오미의 변’으로 마고성에 살던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진지 1천년이 지난 후, 마고는 궁회와 소회를 데리고 비어 있는 마고성에 다시 나타난다. 마고여신은 마고대성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창조여신으로서, 사람들의 잘못으로 버려진 마고성을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것이다.

짐세에 소리 속에서 스스로 태어난 마고여신은, ‘후천(後天)의 운이 열리자 실달대성을 끌어들이 천수(天水)의 지역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실달대성의 기운이 상승하여 물과 구름의 위를 덮고, 실달의 몸체가 평평하게 열려 물 가운데에 땅이 생겼다. 땅과 바다가 나란히 늘어서고 산천이 넓게 뻗었다.’

마고여신은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고 마고성도 세웠으니, 사람들이 떠나버린 마고성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마고는 궁회 소회와 함께 마고성을 보수하고 하늘의 물을 부어 성 안을 청소한 후, 마고대성을 허달성 위로 옮겨버렸다. 이때 청소한 물이 크게 넘쳐 대홍수가 일어나 인간을 많이 죽게 하였고, 지계(地界)의 중심이 변하여 역수의 차이가 생기니 처음으로 삭(朔)과 판(販)의 현상이 나타났다.’



삼신할매전에 출품된 마고여신

우리나라 홍수 신화의 실체다.

이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홍수신화만 있는 것이 아



중국 심천에 있는 여와상 '여와보천'의 모습

나라, 지구가 기울어 사계절이 생긴 이유도 마고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실달성이나 허달성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잘 모르겠으나, 실달성은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실제이고 허달성은 인간계에서 멀리 떨어진 허공 같은 곳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다.

빙하기를 지나면서 온 세상이 따뜻해지자 인간은 대홍수라는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고대 신화에는 대홍수라는 재앙의 흔적이 나타난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이런 대홍수의 기억이 나타난 것이겠다.

중국에도 대홍수에 얽힌 신화가 있다. '여와보천'(女媧補天)이라는 신화인데,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중국의 지형이나 거대한 하천들의 물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공공(工共)은 치수에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우임금의 아버지인 곤(鯀)을 치수의 책임자로 임명하자 꼴통을 부리기 시작한다. 공공은 하늘을 받치고 있는 기둥의 하나인 부주산을 들이받아 부러뜨린다. 그러자 하늘을 가리고 있던 천막이 찢어졌고 온통 하늘에 있던 물이 땅으로 쏟아졌다. 대홍수가 중국대륙을 덮

쳤다. 여와는 오색실로 천막 찢어진 곳을 꿰매 간신히 하늘의 물이 땅으로 쏟아지는 것을 막았다.'

그때부터 중국의 땅덩어리는 부주산이 있던 서북쪽이 높고 모든 물줄기는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마고가 마고성을 청소하면서 천수를 부었기 때문에 대홍수가 일어났고, 지구가 기울어 사계절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시조라는 황궁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천산주로 간 황궁은 근본을 회복(복본)할 것을 서약하였다. 그는 첫째 아들 유인(有因)에게 인간세상의 일을 밝히라고 명하고, 둘째 셋째 아들에게는 모든 주(洲)를 돌아다니게 하였다.'

훨씬 뒷날 신라 화랑들이 산천을 순행하던 모델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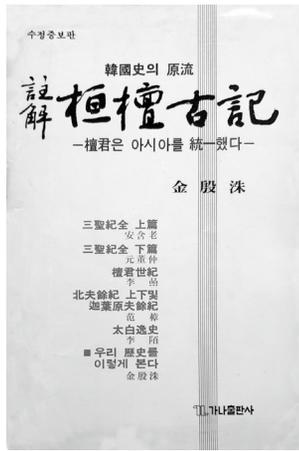
'그리한 후 황궁은 곧 천산에 들어가 돌이 되어 길게 조음(調音)을 울려 인간세상의 어리석음을 남김없이 없앨 것을 도모하고, 기어이 대성 회복의 서약을 쟁취하였다. 이에 유인이 천부삼인(天符三印)을 이어받으니 이것이 곧 천지본음을 본 딴 것으로, 진실로 근본이 하나임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조음이니 천지본음이니 하는 말이 반복하여 나오는 것은, 마고가 소리에서 스스로 태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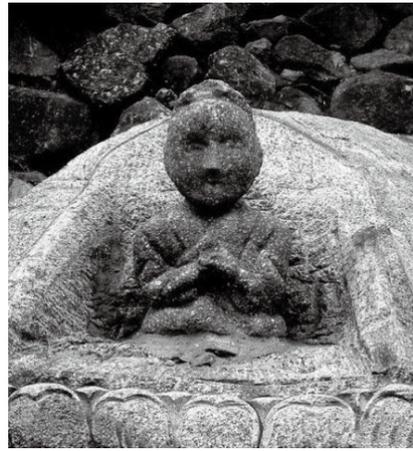
'유인이 천 년을 지내고 나서 아들 한인(桓因)에게 천부를 전하고 곧 산으로 들어가 재앙을 없애는 곳(계불-禊祓)을 전수하며 나오지 아니하였다.'

김은수 선생은 환인 환웅 환단고기(桓因 桓雄 桓檀 古記)를 한인 한웅 한단고기라고 번역하였다.

'이렇게 황궁 유인 한인 3세가 3천 년 동안 하늘의 도를 닦아 실천한 결과, 햇빛이 고르게 비치고 기후도 순조로워 생물이 편안함을 얻게 되고 사람들 역시 괴상한 모습이 점점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 한



『檀檀古記』의 번역본도 여럿이다



지리산 마고성모상. 경남민속문화재 14호

인의 아들 한웅은 천부삼인을 계승하여 계불 의식을 행하고, 웅대한 하늘(천웅-天雄)의 도를 수립하였다. 한웅은 여덟 나라의 말과 두 개의 글을 익히고 역법을 정하고 의학 술을 수업하며 천문과 지리를 저술하니,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하였다.(弘益人間)

한웅의 아들 임검(壬儉) 역시 천웅의 도를 닦아 계불의식을 행하고 천부삼인을 이어받았다.

천부를 비추어 수신하고 근본으로 돌아갈 것을 맹세하며 부도(符都) 건설을 약속하니, 이는 지역이 멀고 소식이 끊어져서 종족들의 언어와 풍속이 점차 변하여 서로 달라졌기 때문에 천부의 이치를 분명히 익혀 서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임검은 동북쪽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자방-磁方)에 부도를 건설하였다.’

부도는 ‘천부의 도시’라는 뜻으로 마고성을 본 따서 만든 것이다.

단군조선의 수도인 부도는 태백산 밝은 땅 정상에 천부단을 짓고 사방에 보단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바로 마고성을 그대로 본딴 것이다. 이처럼 마고의 이야기는 단군에게까지 이어지는데, 단군이 세운 부도가 마고성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것이었고, 홍익인간의 이념 역시 마고시대를 회복하려는 황궁의 복본의

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야기다.

황궁의 후예들은 6만 명을 부도로 이주시키고, 여러 곳에 사는 종족들을 초청하였다.

‘종족들이 차례로 모여들자 박달나무숲에 신시(神市)를 크게 열고, 계불로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늘의 모습을 살핀 후, 마고의 계보를 밝히고 천부(天符)의 음에 따라 말과 글을 정리하였다. 그들은 신시 조시(朝市) 해시(海市)를 열었을 뿐 아니라, 전역에 성황(城隍)을 지어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

신시는 아마 상소도(上蘇塗), 조시나 해시는 중소도, 성황은 소소도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 곳곳에 만들어진 성황은 씨족이나 부족 단위가 제천을 하던 장소였을 것이다. 천산주의 유인 시대, 한인의 적석산 시대를 거쳐 태백산의 한웅 시대 말에 임검이 이루어낸 일이었다. ♪



김상운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인문예술융합축제 '2022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2022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를 마치고

주홍(총감독)

세계적인 원형 광장에서 두 번째 인문융합예술축제 '2022세계지성이 광주를 말하다'가 열렸다. '광주가 품고 있는 대동세상의 꿈과 그 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이 질문에서 시작된 융합예술축제다.

6월 11일 토요일 6시 30분, 타악 그룹 '얼쑤'의 심장을 울리는 북소리에 신명 나는 상모 춤과 사자놀이까지 광장의 시민들은 하나가 되고, 민주광장의 상서로운 기운을 끌어올리며 무등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강연에는 촛불시민연대의 김민웅 교수와 KBS 100분토론의 진행자 정준희 교수를 모셨다. 올해 주제 '민주주의, 광주 그리고 언론'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대한민국 언론지형을 지키는 힘과 광주시민 정신을 이야기했다. 지성과의 대화가 끝나자, 진시영 작가의 '빛의 정원' 미디어아트가 플레이되며 민주광장은 특별한 빛의 무대로 변신했다.

그 후 민주광장에 오월어머니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치유 춤의 대가 최보결 선생과 오월어머니들

은 광장에서 빨래 방망이를 두들기며 일상의 동작이 춤이라는 말을 몸으로 전했다. 그리고 시민들과 손을 잡고 광장에서 평화의 춤을 함께 추며 큰 원을 그리며 기도하듯 대동의 춤을 쳤다.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다.

소프라노 유형민 씨의 목소리로 위안부 소녀들과 이제 함께 살자는 의미를 담은 '누나야 소녀야' 노래가 민주광장에서 울려 퍼지고, 국악가요 '아무도 몰라'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의 목소리가 되어 노래했다. 국악인 이지선과 박현서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광장은 숙연한 기운으로 바뀌더니 감동의 박수가 터졌다.

밤 10시 오월정신릴레이아트에 참여한 전문작가 50인과 시민작가 13팀이 민주광장에서 그린 걸개그림들은 완성되어 민주광장 바닥에 디스플레이 됐다. '무등의 빛-518610' 주제를 담은 다양한 그림들 사이를 시민들이 걸어 다니며 작품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었다.

늦은 밤 광장에서 민주시민캠프도 특별했다. 문형식의 디제이쇼 '응답하라1980' 첫 곡 조용필의 '단발머리'가 <택시운전사> 영화와 함께 광장에 울려 퍼지자, 남아있는 광장의 시민들은 함성으로 화답했다. 디제이가 선곡한 마지막 곡은 마이클 잭슨의 '빌



리진이 장식했다. 대중음악으로 1980년을 기억하고 주권기 가수의 흥겨운 노래에 함께 노래 부르며 춤을 추었고, 광장의 밤은 깊어갔다. 그 시공간에 함께 했던 시민들은 공동체의 감동을 나누고 새로운 민주광장의 기억을 공유하게 되었다. 감사로 충만한 축제로 기억될 것이다.

무등의 빛으로, 붓으로, 소리로 스며들다

승지내(큐레이터&음악감독)

무등에 광주의 정신이 빛으로, 붓으로, 소리로 녹아들어 스미는 날이었다. 시작은 ‘무등 공명’의 북소리와 상모춤, 사자탈 춤으로 민주광장의 영혼을 깨우고 두 지성인을 모시고 광주, 민주,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며 시민들과 함께 끄덕이고 이마 살을 찌



푸리고 한숨과 희망을 동시에 내쉬며 머리와 마음을 맞대었다. 그림 작가와 시민 가족들은 큰 그림 천에 붓으로 이야기를 그려나갔다. 춤의 일원들은 평화와 사랑의 음악과 함께 땅으로부터 하늘로 이어지는 순환을 몸짓으로 이야기하며 치유의 춤으로 함께 했다.

음악 공연자들의 입을 위한 행진곡은 묵직한 첼로 소리로 시작하였고, 춤의 여신은 몸을 흐물흐물 움직여 나갔다. 오월의 어머니를 깊이 안고 오히려 그 여신이 위로를 받으며 광주시민과 함께 치유의 눈물을 흘렸다. 소프라노의 목소리로 불린 ‘누나야 소녀야’ 노래가 가슴에 남는다. 함께 하고 싶지만 지금은 옆에 없는 가족을 그리는 마음이 모두를 먹먹하게 했다. 그리고 국악 노래로 불린 ‘아무도 몰라’는 전쟁과 국가폭력에 의한 실종자와 숨겨진 진실에 대한 답답함과 너무나도 비참한 그 이야기 그리고 세계에 일어나는 지금 현실의 이야기를 노래하며 민주광장을 1980년의 그날로 만들어 버렸다.

행사의 마지막은 시민과 함께 하는 ‘응답하라 1980 디제이 쇼’와 ‘릴레이 아트’ 작가들의 광장 그림 전시가 이어졌다. 그림들은 광장의 공기를 마시며 숨을 쉬고 있었다. 그 기운들이 모여 이 땅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이날의 공기와 이날의 땅을 기억하기 위해 나는, 자정이 지난 시간까지 광장을 바라보며 오래 서있었다.

광주민주화 광장 대동의 춤

- Love & Peace

최보결(춤의학교 대표)

세계지성이 말하다. 두 번째 대동의 춤. 수많은 발들이 지나갔을 민주광장. 공연 1시간 전에 도착한 오월어머니들이 30분 연습하고 참여한 공연이었다. 오



월어머니들이 직접 참여하신 더하기빠기춤 3분 만에 “가슴속에 응어리가 풀어졌어요”, “흥미 있고 좋네요”,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개운하고 푸근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눈물이 풀풀 나요” 라는 느낌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42년을 어떻게 사셨을까? 이제 오월어머니들은 그 고통과 분노, 슬픔을 품고 사시는 어머니가 아니다. 그 고통과 슬픔이 몸에서 삭혀져 사랑과 예술로 발화하는 치유의 어머니들이시다.

공연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오는 자동차 안에서 너무도 가벼운 나의 몸, 존재의 가벼움을 느꼈다. 분명

피곤해야할 몸이었다. 어딘가 숨어있을 나의 상처가 말끔히 씻겨나간 자리,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고요한 자리에 서있는 느낌이다. 분명 오월어머니들이 마음이 풀린다고 고맙다고 안아주셨는데 나의 마음이 치유되었다. 그녀들의 넓은 치마폭에 싸여 큰 사랑의 옷을 입고 나온 느낌이다. 그녀들은 이제 치유 받아야할 어머니들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품어줄 어머니들이다. 그 고통을 품고 살아온 그 시간과 무게만큼 큰 사랑과 평화의 화신들이시다. 오월어머니들의 마음이 풀리셔야 광주의 마음이 풀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풀리는 것 이라는 걸 안다. 이제 우리는 풀려나고 있

다. 희망이 보인다. 나는 상상한다. 오월어머니들이 ‘춤추는 오월어머니들’이 되어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아름다운 신나는 장면을.

시민작가 참여 후기

김건영 가족(김윤혜, 김별, 김봄)

5·18민주항쟁에 대해서 아빠와 8살, 40개월 된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 상의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8살 아이가 집안일을 하는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 하는 거잖아. 그런데 엄마! 놀라지마 5·18은 우리나라끼리 전쟁한거래” 8살 아이의 눈에 비춰진 5·18민주항쟁은 흡사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아 보였나봅니다. 참 마음이 아픈 기억들이었고, 고마운 기억들이었고, 행사를 주최하시고 진행하신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에 감사드립니다.^^

김영란 가족(주현민)

‘2022년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를 참여하면서 광주에 살아 행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고 정말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이윤지 가족(노아람)

힘들기도 했지만 완성된 작품을 보니 뿌듯하기도 했고 모든 걸 무료제공 해줘서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또 해보고 싶습니다.

전봉진 가족(김윤아, 전혜인, 전혜민)

매년 5·18광장에서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온전히 느끼며 온 가족이 그 의미를 한 폭의 그림에 정리하

니, 당장 내일의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매년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에 감사드립니다.

홍원숙 가족(김민규)

오월의 정신을 알고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념하는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황인섭 가족(하유담, 황혜슬, 황유슬, 황성후)

릴레이아트에 가족들과 참여하게 되어,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6·10민주항쟁 뜻 깊은 사건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민주화를 만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황지민 가족(박서진, 박서윤)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였고 다른 행사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전주만의 특별한 도서관여행



전주시 책기동도서관

한 도시의 가능성은 그 도시의 도서관에 숨겨져 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시민들을 품고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은 그 도시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전주시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특별한 주제를 가진 특성화도서관들을 연이어 개관하고 기존의 오래된 공공도서관들을 시민들의 책 놀이터로 새롭게 탈바꿈해 나가고 있다.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무르익어 가는 전주의 도서관을 소개한다.

전주시는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의 비전을 선포하고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내에 책의도시여행과를 신설하여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담은 이색적인 특성화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

의 인프라와 전주의 책문화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행하듯 즐기고, 지속적으로 책과 도서관을 만나며 책이 삶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주 도서관 여행은 매주 토요일 총 3개의 여행 코스가 운영되고 있다. 5곳의 특성화도서관을 하루 동안 여행하며 체험하는 '구석구석 하루코스'와 여행자들의 취향을 담은 4개의 주제별 코스인 '쉬엄쉬엄 반일코스'를 오전과 오후 총 2차례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주 도서관 여행은 6월까지 총 57회 운영했으며, 551명[전주시민 412명(75%), 타지역 139명(25%)]이 참여하였으며, 여행 참여자들로부터 여행 만족도 94%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전주시는 여행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다가오는 하반기부터 도서관 여행의 즐거움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전하고자 전주 도서관 여행 코스를 새롭게 개편하였다.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사업을 통해 야호 책 놀이터로 탈바꿈한 금암도서관과 6월 2일 개관한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을 여행 코스에 추가하여 새로운 코스를 기획하였다. 또한, 도서관 여행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참여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여행자들의 참여율이 높고 추가 코스 개설 요청이 많았던 가족형 프로그램을 매주 운영

해 여행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였다.

하반기 새롭게 여행자들을 맞이하는 ‘구석구석 하 루코스’는 1·3·5주 덕진공원 코스와 2·4주 웨리단길 코스로 운영된다. 여행자들이 취향껏 선택하는 ‘쉬엄 쉬엄 반일코스’는 매주 토요일 오전과 오후 총 두 차례 운영되며 이 밖에 상상력을 키우는 책과 도서관을 경험하는 가족형 코스, 주택가와 자연 속, 변화가 등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도서관을 경험하는 코스, 전주시의 오래된 공간들에 시민들의 기억을 담아 새롭게 재탄생한 도서관을 방문하는 코스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

전주 도서관 여행에 참여한 전주 시민은 “각 도서관마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해설사의 친절한 해설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며 “그동안 도서관이 마치 숙제하듯 책을 읽는 어려운 공간이라고 느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책과 도서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 지 편하게 올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전주의 도서관을 자주 방문할 것”이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한, 멀리 대구에서 방문한 여행자는 “철학이 있는 도서관의 모습을 알게 되었고, 특성화도서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새롭게 느껴졌다”고 말하며 “도서관 여행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전주의 숨은 보석 같은 도서관들을 알게 되었고 타 지역에도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참여 후기를 남겼다.

전주시는 매주 토요일 이루어지는 상시 도서관여행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영향력자(인플루언서)와 함께 하는 책여행 △생애주기별 도서관 여행 △전주 문화체험형 도서관 여행 등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영향력자(인플루언서)와의 책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 6일에는 JTBC 트래블러 작가 야반도주팀과의 책 여행을 진행하였고, 8월에는 양태오 디자이너(11일)와 유지혜 작가(30일)와의 전주 도서관 여행을, 9월은 황인찬 작가님, 10월은 전주독서대전과 연계하



1 전주시 도서관 여행중인 여행자들의 모습
2 전주시 다가여행자도서관

여 장동선 작가님과 김하나·황선우 작가님과 함께 책 여행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주문화 체험형 도서관 여행’도 만나 볼 수 있다. △도서관+미술관+박물관을 결합한 라키비움 여행 특별 프로그램 △전주독서대전 기간 전주 문화 체험형 도서관 여행 특별 프로그램 등 책과 전주의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

생통포럼에서 찾은 시민사회의 필요성

7월 26일.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생통포럼. 집중하고 있던 업무를 마저 끝내고 한숨 돌릴 겸 달력을 넘겨보니 포럼 일정이 잡혀있다. 아직 재단의 사업과 내용이 몸에 밴 듯 익숙하지는 않아 일정을 확인하고는 약간의 긴장이 몰려왔다. 한 사업이 시작되어 큰 문제없이 끝나기까지 많은 서류와 진행 순서를 거친다. 하나의 포럼을 개최하는 데에도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지 고민하고, 주제에 맞게 포럼을 이끌어갈 줄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패널 등을 섭외해야 한다. 섭외하기 전에 우선 대상의 충분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날짜와 시간, 원고 요청, 변동사항 등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때때로 충분한 사전 조사와 노력만으로는 섭외가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는 시민의 문화권 확대와 문화민주주의 실현, 시민이 주체가 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7년 창립된 협의체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간사단체로 있으며 전반적인 행정지원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처음 인수인계를 받을 때 생소하고 많은 업무 메뉴얼에 그저 한 귀로 흘렸던 내용을 포럼 개최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제출한 교부신청서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다가오는 포럼 날짜를 보며 구비서류와 물품, 진

행 순서와 자료집 내용을 점검했다.

포럼 당일, 개최 장소에 미리 도착하여 짐을 풀고 책상과 의자를 정리하니 그럴듯한 포럼 장소가 만들어졌다. 일찍 오신 시민 분들이 하나 둘 자리를 채워 주셨고, 발표자, 지정토론자, 패널 분들이 도착해 인사를 나누며 나도 조금씩 분주해졌다. 현장을 꾸준히 살피면서도 중간에 토의 내용을 듣고 싶어 틈틈이 마이크를 잡은 목소리를 따라 자료집을 훑어 내려갔다. 이날 포럼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 분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덕분에 현장감 넘치는 열띤 토의의 장이 펼쳐졌다.

민선 8기,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포럼이 끝나고 이번 주제에 대해 생각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관여하는 여러 주체들이 서로 협력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 중 광주문화도시협의회는 시민사회 역할로서 좀 더 주체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불러 모아 협력 구조 간 균형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재단에 들어와 '민관 협치'라는 낯선 단어를 처음 접한 뒤, 다양한 사업과 포럼을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점점 머릿속에 뿌리내렸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의 의미와 역할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단어다.

한 분야에 있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많은 사람과 조직이 있다. 정부기관부터 준정부기관, 협력기관, 영리, 비영리 시민단체까지. 늘 마지막에 시민단체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건 조직 간 연결고리에서 기울어지기 쉬운 각도를 가장 수평적으로 맞추어주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시민사회의 자유와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내고, 지역 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며 차별 없이 나아가는, 그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에 어느 때에는 비판, 견제, 감시의 역할을 감수하고, 또는 협력을 통해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지역문화예술과 더불어 시민단체의 특성을 띠는 재단이 중심과 외곽의 다리역할을 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 시민이 원하고 향유하는 풍요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에 크게 주력한다.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주체는 바로 '시민'이다.

시민과 대중의 차이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 언뜻 보기엔 비슷한 의미 같지만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으로 뜻하고 있었다. '시민'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생긴 단어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뜻했다. 반대로 대중은 불특정 다수가 모여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정치적인 의사 결정에 별 관심이 없는 익명성을 띤 집단을 뜻한다. 가장 큰 차이는 사회·정치 참여이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권리, 사회에 불합리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당당히 개인의 몫을 해내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시민'이다. 단순히 시민단체의 일부적인 이미지와 편견을 가지고 같은 시민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박탈시키거나,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줄었으면 한다. 때에 따라 대중이 되어야 할 때도 있지만, 각각의 독립된 개인으로서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시민'이어야 한다.

발표자의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문화정책 중 하나인 청년문화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청년이고, 문화예술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나누는 포럼에 참여한 한 시민이며, 한 대목에서는 문득 중앙정

부기관의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에 대해 고민이 많아 보였던 전당장과의 인터뷰가 떠오르기도 했다. 또 대중의 한 명이자 문화시민으로 하늘마당에서 맥주를 마시며 발레공연도 보고, ACC 예술극장에 다 같이 모여 영화와 밴드연주에 빠져 들어가는 현장을 즐기기도 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청년공익네트워크 모임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청년들과 함께 가벼운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어나가다 보면 비슷한 고민을 접하게 된다. 서로 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려 하고, 조금씩 우리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나가는 중이다.

나는 무엇을(What), 어떻게(How)를 거쳐 왜(Why)를 스스로 납득해야 유연한 사고를 갖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다. 상임이사님이 처음에 말씀해주셨던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지만, 조금씩 이곳에서 일하는 나에 대한 의미를 찾아나가고 있다. 수많은 나무 앞에 서게 되고, 그것을 여러 번 거친 후에 문득 숲인 줄 알게 되려나. 조금씩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듣게 되고, 괜히 나뭇가지 하나를 건드려 빗물을 맞기도 한다. 아직 혼자서는 어렵고, 주변 사람들이 내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본다. ♪



김혜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간사

문화공감_ 김옥열의 포토에세이

무심한 세월은 흐르고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1년. 아까운 목숨이 진 자리엔 오늘도 무심한 시간이 말없이 흐르고, 붕괴의 진원에는 아픔을 알 리 없는 또 다른 푸른 생명들이 자라 오른다. 마치 먼저 간 넋을 위로하겠다는 듯….

김옥열_ 사진작가





재단소식

[재단소식]

•사업

‘2022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융합예술축제 개최



‘2022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융합 예술축제가 지난 6월 11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위기의 시대에 집단 지성에게 길을 묻고 시민들과 함께 해답을 모색해가자는 취지로 기획된 이 행사는 얼쑤, 잭이, 전통연희놀이연구소의 타악과 춤이 어우러진 「대동의 춤_무등공명」을 시작으로 이어서 김민웅 전환 행동 대표, 정준희 교수의 ‘광주정신 이야기’ 최보결 안무가와 오월어머니, 시민들의 함께한 ‘대동의 춤_Love&Peace’가 펼쳐졌다. 또한 50인의 전문작가와 12팀의 시민작가가 참여하는 ‘오월정신 릴레이아트’가 본 행사와 함께 진행되었고 ‘응답하라 1980’을 주제로 문형식DJ와 함께하는 디제이쇼도 병행하였으며, 이날 행사는 유튜브와 문화전당 미디어월을 통해서 생중계 송출되었다.

제 11기 역사문화시민대학

‘광주와 마한, 남도문화의 원형을 찾아서’ 개강



‘광주와 마한, 남도문화의 원형을 찾아서’란 주제로 제11기 역

사문화시민대학이 지난 6월 16일(목) 광주 동구 미로센터 2층 문화라운지에서 열렸다. 이번 역사문화시민대학은 총 4강좌로 ▲ 1강좌 6월 16일(목) 「영산강 유역 마한의 이해」(임영진 호남문화재연구원 이사장) ▲ 2강좌 6월 21일(화) 「복암리 고분이 들려주는 마한과 고대문화」(이정호 동신대학교 교수) ▲ 3강좌 6월 23일(목) 「영산강유역 전방후원형 고분 외」(이범기 전남문화재연구소 소장) ▲ 4강좌 6월 28일(화) 「신창동 유적과 광주의 기원」(조현종 前국립광주박물관 관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6월 30일(목)에는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과 함께 나주 일대에서 월계동 고분과 유적을 살펴보는 문화탐방도 준비되었다.

〈아홉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영광으로 떠나는 해변의 낭만’



‘영광으로 떠나는 해변의 낭만’을 주제로 아홉 번째 지역문화 교류마당 행사가, 지난 7월 9일(토) 재단 임직원 및 시민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문화예술회관 후문에서 출발하여 원불교 영산성지, 법성진성,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등을 경유하는 코스로 진행된 이번 지역문화교류마당은 김덕진(광주교육대 교수) 이사장의 동행해설과 함께 오후에는 객(歌客) 정용주와 함께하는 ‘해변의 낭만’ 프로그램이 더해져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조직

2022년 제5차 정기임원회의 개최

2022년 5차 정기 임원회의가 지난 6월 8일(수)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임·회원 문화나들이 행사는 후원이 사회 의결을 존중하여 제안된 기획안대로 추진하고 필요한 후



속조치는 후원회장과 사무처에 위임키로 하였다. 또한 송진희 이사의 사임 뜻을 존중하여 등기 임원을 노성태 연구소장으로 변경하였으며 2월 정기이사회 의결에 근거하여 신규 임원으로 박종찬 광주대 교수를 선임하였다. 한편, 6월 중 개최되는 '2022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한다' '11기 역사문화시민대학'에 상황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임원들이 적극 노력키로 하였다.

문화담론지 『창』 가을호(통권 58호) 준비 편집위원회 개최



문화담론지 『창』 가을호(통권 58호)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가 김옥열 편집위원장, 김향득, 김정희 편집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1일(화) 11시,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집기획과 핫피플 인터뷰, 문화인, 문화공감 리뷰 카테고리를 중점적으로 의논하였다. 특집기획에서는 '문화도시 광주, 축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지역 축제의 정체성과 향후 가능성에 대해 짚어보고, 진단에서는 '달라진 도서관의 의미와 전주 도서관 소개', 그리고 '관광여행 청신호, 광주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다루기로 하였다. 우리 재단이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문화담론지 『창』은 문화정책 현안과 문화 담론 외에도 문화 청년그룹 소개, 신화연재, 포토에세이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연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착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출범식 개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정착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가 지난 7월 22일(금) 11시 전일빌딩 245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광주시, 문화전당, 아문도시시민연대 등 조성사업의 참여 주체인 9개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민·관·정 협의체는 아특법 개정을 통해서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된만큼, 이제는 전당의 활성화와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올해 5월 준비단을 구성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네 가지 사항을 합의하고 출범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민선 8기,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가능한가?'

주제로 포럼 열려



민선 8기,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가능한가? 주제로 포럼이 지난 7월 26일(화)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광주문도협이 주최하고 우리 재단 등 10여 개 시민문화예술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민선 8기 광주시 문화예술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포럼 사회는 우리 재단의 이기훈 상임이사, 발표는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지정토론자는 전고필 전라도 지오그래픽 연구소장, 패널은 정진삼 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장,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대표, 이당금 예술이뻐그라운드 대

재단·회원소식

표, 윤준혁 지니엑스 대표, 김소진 1995Hz 대표, 윤만식 한국 민족극협회 상임교문이 각 각 참여했다.

민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사)포럼 소통과 교류는 지난 1991년 창립했으며 영호남 교류, 학술 세미나, 교차 방문 등 민간 차원의 교류 사업을 해오고 있다. 회원은 80여 명이 가입돼 활동하고 있다.

- <위키트리> 발췌

[회원소식]

“회원님들의 소식을 받습니다”
회원님들의 기쁘고 축하할만한 소식을
『창』에 실고자 하오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김종률 회원(세종시문화재단 대표),
예향초대석-「임을 위한 행진곡」 작곡가 김종률 인터뷰



1981년 3월 14일 상무관 옆 남도에 술회관. 대학가요제에서 두 차례나 수상했던 김종률(당시 전남대 상대 4학년)의 두 번째 작곡발표회가 열렸다. 김 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의미를 '존·창·각'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한다. “5·18에 상처 입었던 시민들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뛰었던 분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얻었다면 정말로 저는 행복합니다. 프랑스 대학명이 그랬듯이 항쟁의 역사는 정치 영역이나 교육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치·교육 영역에 있는 역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로 승화된 역사만이 영속(永續)합니다. 5·18이 광주를 넘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 <광주일보> 발췌

이기훈 상임이사, 김옥열 이사(다큐디자인 대표), 이민원 이사(광주대 명예교수)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토크쇼 참여



(사)포럼 소통과 교류(회장 홍경표) 주관으로 열리는 토크쇼는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기조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기조 발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최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하고, 지역

백수인 고문(조선대 명예교수),
다형기념사업회(대표 백수인) 『다형 김현승의 시간』 발간



다형기념사업회(대표 백수인)가 최근 『다형 김현승의 시간』(한림)을 펴냈다. 이번 책 발간은 우리 문학사의 한 시대를 품어왔던 광주의 대표 시인 다형을 기리고자 기획했다. 백수인 대표는 “그와 함께 동행했던 동료 문인들도, 그의 그림자 아래에서 시를 배우고 따르던 제자들도 점점 과거의 시간으로 저물어 가고 있다”며 “더 저물기 전에 그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모아두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출간 의미를 말했다.

- <광주일보> 발췌

김덕진 이사장(광주교육대 교수),
울산대곡박물관 학술대회 기조강연



우리 역사 속의 재난·역병 발생과 그 대응에 대해 살펴보는 학술행사가 마련된다. 울산대곡박물관은 “24일 낮 12시 30분 울산박물관 2층 강당에서 ‘우리 역사 속의 재난, 역병 발생과 그 대응’을 주제로 제10회 학술대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박물관 쪽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현재와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과거의 예기치 못한 역병 등의 재난 상황을 비교하며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 <한겨레>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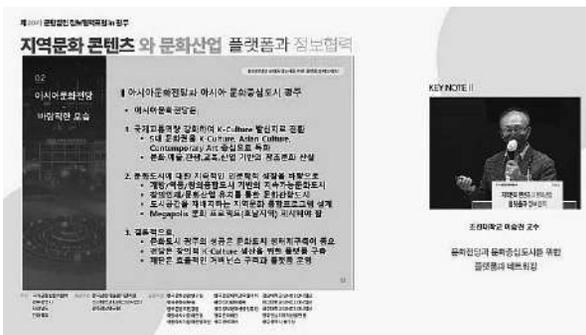
김양균 부이사장(전통문화연구회 얼썬 대표),
“코로나·무더위 모두 물렸거라 광산농악 낚신다”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신명난 광산농악의 찰진 멋과 맛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광산농악보존회가 오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광산농악 전수관에서 ‘광산농악 하계 배움터’를 진행한다. 광산농악은 마름동 판굿농악을 중심으로 칠석동 고싸움농악, 산월동 풍장농악 등 광산구 지역에서 연주되던 다양한 농악을 집대성한 결정체로 호남우도농악에 속한다. 1990년 8월 설립된 이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농악부분 최우수상인 문화부장관상을 2회 연속 수상했다. 또 호남우도농악 쇠가락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평판과 함께 지난 1992년 3월 광주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번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광산농악의 팽과리 중급, 장구 중급, 북 중급, 소고 초급, 잡색 기본춤 등 5개로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까지 선착순 마감한다. 수강료는 무료다.

- <전남일보> 발췌

이승권 이사(조선대 교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ACC 역할론 새틀짜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핵심 거점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역할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ACC는 올 초 운영 정상화를 위해 조직이 통합되고 새로운 수장이 취임했지만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승권 조선대 교수(국제문화연구원장)는 지난 14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가 ACC에서 개최한 제20차 균형발전정보협력포럼 기초강연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ACC의 역할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다”며 “우선 광주를 K-Culture 생산지로 만들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5대 문화권을 문화와 예술·관광이 연계된 특화공간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등일보> 발췌

함께해 주세요!

호남 지식인들의 생활사 만나기

기간: 2022년 9월 20일(화) ~ 10월 15일(토) 화·목 오후 7시
장소: 미로센터 미로극장 1관(영구 중앙로 예술의거리)
주최/후원: (재)지역문화교육진흥재단
주관: (재)지역문화교육진흥재단

- 모집: 선착순 80명
- 참가비: 2만원(회원 1만원) ※당사비 포함, 추가비용 없음
- 계좌: 광주은행 019-107-318262 (재)지역문화교육진흥재단
- 문의: 062)234-2727
- 프로그램

일차	일시	강사	주요 내용
1강	9. 20 (화) 19:00~20:30	이태훈 (작가, 평론가, 석학교수)	조선 문인, 그림, 조각가, 복자 - 유학 유수의 삶과 생활사
2강	9. 22 (목) 19:00~20:30	정항원 (고려대 교수)	조선의 살림사는 남자들
3강	9. 27 (화) 19:00~20:30	이항준 (연세대 교수)	고종, 퇴계와 '명지'를 통해 뜻을 품었다
4강	9. 29 (목) 19:00~20:30	김태희 (연남대 예술관장)	다산 정약배가 유배지에서 맺은 인연
5강	10. 4 (화) 19:00~20:30	정성일 (영유대 교수)	수려한 자연을 담고 있다, 호남여행기
6강	10. 6 (목) 19:00~20:30	조광철 (광주아시아문화전당 학예연구실장)	호남(대): 호남선비의 과거길 월광에서 한강까지
7강	10. 11 (화) 19:00~20:30	김희선 (연세대 명예교수)	호남지역 선비들의 모교생활
8강	10. 13 (목) 19:00~20:30	고명환 (영유대 교수)	호남지역의 소승과 세리, 친구 찾기
일차	10. 15 (토) 09:00~17:00	정봉 권두효, 이현진 < 다산초담 > 백문정환 < 월광사지 >	

“환영합니다”

신규회원

- 최유진(광주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센터장)
- 이다비아(상담사)

함께하는 사람들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부이사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박신영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회장, 소설가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썬 대표

〈상임이사〉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사〉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 성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상임고문

김영주 (주)광주전남ICT협회 회장

김옥렬 (주)다큐디자인 대표

김정희 시인 『광주문학』 편집주간

김하림 조선대 명예교수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부회장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류영국 지오시티(주) 대표

박요주 세무사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양봉모 불교방송 총괄본부장

오견규 화가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이승권 조선대 프랑수어과 교수

이연수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철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정현애 흥복학원 이사장

지형원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회장

황병하 조선대 명예교수

〈감사〉

윤만식 (사)한국민족극협회 고문

최회용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썬 대표

〈부운영위원장〉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주 흥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운영위원〉

구용기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 사무총장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총괄지원연구관

김성환 서구청 문화정책 전문위원

김윤아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협의회 정책팀장

김향득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김혜선 광주과학기술원 CT연구소 연구원

윤준혁 (주)지니엑스 대표

이상필 동신대 교수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CS 대표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창의문화관광연구실장

조재용 비콘컴퍼니 대표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소 기획위원회

〈연구소장〉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기획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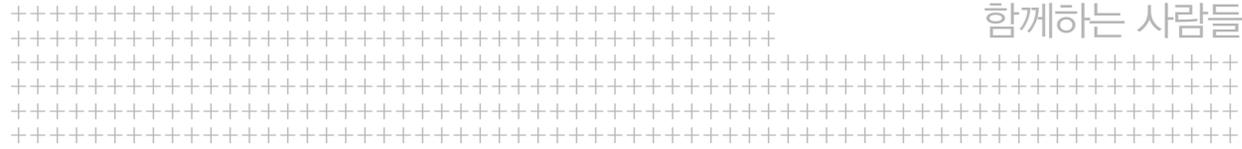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원중 전 지역문화컨텐츠연구소 연구실장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류영국 지오시티(주) 대표

이향준 전남대 철학교육연구센터 연구원



후원이사회

〈후원회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부회장〉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이사

〈후원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대표

국형렬 금호시스템 부장

김동규 준이앤씨 대표

김병균 강토이앤씨 대표

김상집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성환 조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용혁 (주)울림 부사장

손용만 광주관광협회 사무국장

유병연 삼진종합건설 기술이사

이명란 시인, 문학전문 강사

정광민 서로 건축사무소 대표

황재익 오스메딕 대표

고문

김상윤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이지호 사업팀장

김혜라 간사

이하린 청년활동가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옥열 다큐디자인 대표

〈편집위원〉

김정희 시인, 『광주문학』 편집주간

김향득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박신영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회장, 소설가

이지호 사업팀장

김혜라 간사

배롱나무꽃 가득한 죽림재 장서각(전라남도 기념물 제99호)



광주호를 가다보면 잣정마을이 나오고 이름하여 죽림재가 나온다.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목백일홍, 가을에는 단풍, 겨울 설경이 장관을 이루지만 사계 중 여름 풍경이 으뜸이다. 창녕조씨 문중의 글방 앞에 서 있자니 그 옛날 학동들의 천자문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하다.

편집 후기

계절의 움직임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게 덥고 습하던 그 여름밤들은 거짓말처럼, 꼬랑지도 안 비치고 도망가버렸습니다. 참 신기하죠? 정해진 룰대로, 그리하도록 스스로 정한 원칙과 질서대로 잘도 굴러가는 자연의 모양이 새삼 위대하다고 느낍니다. 사실 요즘 ‘기후변화’니 ‘기후위기’니 해서 자연이 금방 두동강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진짜 ‘위기’이고 ‘비상’인 것은 인간세상일 겁니다. 자연의 눈에서 보면요,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로 자연도 상처를 입고 피를 철철 흘리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조변석개하고 럭비공 튀듯 예측불가능하면서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오기를 부리는 인간만 하겠습니까? 잊지않고 제 스케줄대로 돌아와 준 선선한 바람과 맑은 햇빛이 참 고마운 계절입니다.

지역문화현상을 애정어린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창>이 이번 가을호 특집으로 지역축제의 문제점을 진단했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새로운 의견들을 많이 내주신 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면이 더 넓다면 훨씬 더 많은 의견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축제의 미래를 위한 고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바람 부는 세상에 서서 행동하는 인문학자’ 황광우 선생의 인터뷰나 사라져가는 것들에 온정을 불어넣어 숨결을 되살리는 마술사같은 김지연 사진작가의 인터뷰가 이번 달엔 특히 눈길을 끄니다. 꼭 읽어봐주세요. 특별한 도서관여행지로 부상한 전주 이야기는 더 길게 쓰지 못해 아쉽습니다. 우리 재단이 주최해 화제를 모은 ‘2022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뒷 이야기도 좋습니다.

좋은 글들을 보내주신 여러 필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편집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밀에 인사드리겠습니다.

- 편집위원장

窓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예술여행 대표도시에서 광주에서 즐기는

10.2 광주

2022. 10. 1 ~ 10. 31



1913
송정역시장



I LOVE
K-POP

그린마을 조성, 신재생에너지 확산, 생태 복원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도시 광주 북구

